(FQ)06한 나라 본 책(206~227) 2008.3.29 4:28 AM 페이지 206 western

VISION 6

교육·평생 학습사회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한 인재양성

20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1/2 축소하겠습니다.

'교육체제 다양화로 사교육 흡수'

- 알찬 공교육과 창의적 교육
- 고교 다양화 300 사업 추진
- 기초학력, 바른 인성교육

21 대학자치와 경쟁력,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 교육과 연구의 자율체제 정착
- 전문대학 교육 내실화와 자율화 추진
- 국립대학 단계적 법인화
- 개인연구비 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 선발방식 자율화
- 대학의 정보공개로 책임성 부여

22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이루어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애 교육복지'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도입
-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 평생학습체제 전면 도입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기숙형 공립고교 우선 배정(최대 교육기회 보장)

VISION 6

교육·평생 학습사회

목표 20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1/2 축소하겠습니다.

'교육체제 다양화로 사교육 흡수'

알찬 공교육과 창의적 교육 / 세계적 수준을 지향

사교육비의 증대로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통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와 창의적 교육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희망찬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창의적 교육정책으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육성해야 합니다.

■ 자율과 자치의 확대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관치(官治)'에서 '자율(自律)'로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철학을 바꾸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창의적인 교육기관의 경영을 통하여 공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OECD 선두 국가의 수준으로 고품질화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을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자율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공교육의 창의적 발전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로 학생들의 인성개발과 학습 내용에서 비교우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점형 수업과 적성별 수능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다원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도 학생의 특기와 장기를 살리게 하고 건강과 체력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취업에 대해서 공교육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 고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등 교육기관들은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채택하겠습니다. 각종 인적자원센터,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센터, 혁신센터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마이스터 고교나 대학이 지역 내 기업의 인력수요 및 재교육과 산학협력정보 등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재학 중 인턴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학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FQ)06한 나라 본 책(206~227) 2008.3.29 4:28 AM 페이지210 western

고교 다양화 300 사업 추진 / 공교육 다양화의 출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를 거부하고 획일적 규제를 철폐하여 다양한 고등학교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런 조치들을 지방에서부터 구현하여 지방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를 설립하겠습니다.** 농어촌 및 낙후 지역과 중소도시를 출발점으로 해서 대도시의 후방지역에 이르기까지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학생들이 24시간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고 학생의 가정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숙사와 장학금제도를 통하여 지역의 낙후로 인재의 배출이 취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겠습니다.

■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설립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졸업 이후의 취업이나 진학이 가능한 특성화 고등학교 50개를 설립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을 보장하며, 산업체나 시민사회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운영 주체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는 학비 면제를 포함하여 외국어 교육과 해외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 **자율형 사립고교 100개를 설립하겠습니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교의 법인전입금과 같은 재정 규제를 낮추고, 학교 운영의 자율을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교 100개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2,500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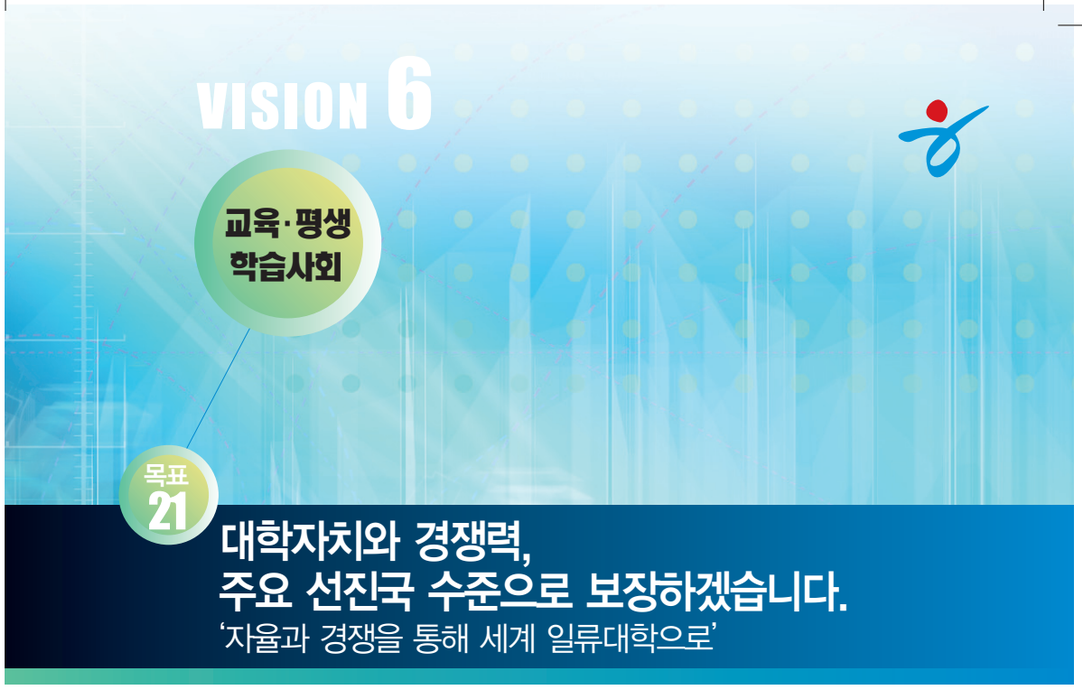


기초학력, 바른 인성교육 / 바람직한 인격체 교육

대도시와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학력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력수준이 다소 뒤떨어지는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왕따, 학교폭력, 심한 스트레스 등 우울한 교육환경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zero) 계획을 펼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겠습니다. 학업능력의 발달 추이를 판단할 수 있게 과학적인 지도를 하고 부진한 분야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지도를 하겠습니다.

- **바른 인성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지겠습니다.** 학교 내외의 학생활동에 대한 교육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여 폭력, 집단 따돌림, 극단적 소외현상 등을 없애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교사 및 전문가,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당면한 문제를 현실에 맞게 해소하겠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자율체제 정착 / 대학자치와 국제경쟁력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우수한 인재의 양성 없이 우수한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없으며, 우수한 기업 없이 일류 국가는 물론 부강한 선진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3불 정책과 같은 대학 규제와 간섭은 물론 대학 지원 사업이나 인허가에 직접 개입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철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학의 학생 선발 및 교육을 자율화하고 연구지원 방식과 제도를 개선하여 대학 교육의

(FQ)06한 나라 본 책(206~227) 2008.3.29 4:28 AM 페이지214 western

질적 수준을 높이고 초일류 브랜드 연구자를 대폭 양성하겠습니다.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수 확보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외국의 우수한 교수를 대폭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학문 간의 경계를 축소하면서 학생이 유연하게 전공을 선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내 대학의 R&D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 **대학 학사 운영, 사립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 연한 규제를 완화하고 학칙보고제 폐지, 수업일수 감축 승인, 입시휴업 보고의무를 폐지하겠습니다. 대학 편입학 전형계획 지침 폐지, 편입학 전형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며, 대학(원)의 휴업 및 휴교명령을 폐지하겠습니다.

전문대학 교육 내실화와 자율화 추진 / 전문대학 자치의 실현

직업의 세분화로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는 4년제 대학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과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교육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통해 급속도로 진전되는 사회와 기업의 문화에 적합한 인재양성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전문대학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66개 전문대학은 실무지향형 인재의 중요한 양성기관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물론 전문대학의 교육내용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충원하여,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과 취업이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대 졸업생의 100% 취업 시대를 계속 유지시키겠습니다.

■ **전문대학의 자율화와 다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08학년도부터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과정(3·4학년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인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제도를 향후 3년간 운영 후 성과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자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FQ)06한 나라 본 책(206~227) 2008.3.29 4:28 AM 페이지216 western

국립대학 단계적 법인화 /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대

국립대학을 정부조직이 아닌 자율적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특성화된 교육·연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는 국립대학부터 자율결정에 의한 법인 전환을 유도하되, 국립대학의 재정 형편을 보아 법인화 이후에도 당분간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인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의 형편과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의 판단을 일차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법인화 추진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의 질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화 이후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대학이 법인화되면 앞서 전환되는 대학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육내용이나 수준, 재정 면에서 보완할 점을 찾겠습니다. 법인화 이후의 재정지원방식을 개발하고 대학 스스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개인연구비 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 /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방식의 변경

대학의 각종 형식적 정책 사업은 축소, 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재정분야에서 연구비 지원과 장학금 지원비율이 확대되어야 하며, 대학재정 지원이 취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연구비의 공개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정책 사업비(BK21, NURI, 대학 특성화 사업 등)를 축소하며 연구비·장학금 지원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연구비의 출처나 연구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연구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집중 지원받는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개인연구비 지원 확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재정지원은 취업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용, 노동, 교육 관련 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한 후, 취업률을 높이는 대학에 대한 지원(교육중심 우수대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 선발방식 자율화 / 입시부담 경감과 3단계 대입자율화

학생과 학부모는 수능, 내신, 논술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당국과 대학 간의 입시 갈등으로 인해 대학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스템을 통제와 감독으로 일관하다 보니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교육시장의 병폐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입시부담을 줄이고 적성에 맞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선발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대입 3단계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및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입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이 정부의 획일적 규제와 점수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을 탈피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입시전형방법 명확화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1단계로 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와 대입 업무 이양, 2단계로 수능과목 축소, 그리고 3단계로 완전 자율화를 실시하겠습니다.

■ **고교별 교육과정의 특성, 개인의 환경 및 특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대입자율화 1단계로 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와 대입업무를 이양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대입전형 개입 관행을 폐지하며, 대입과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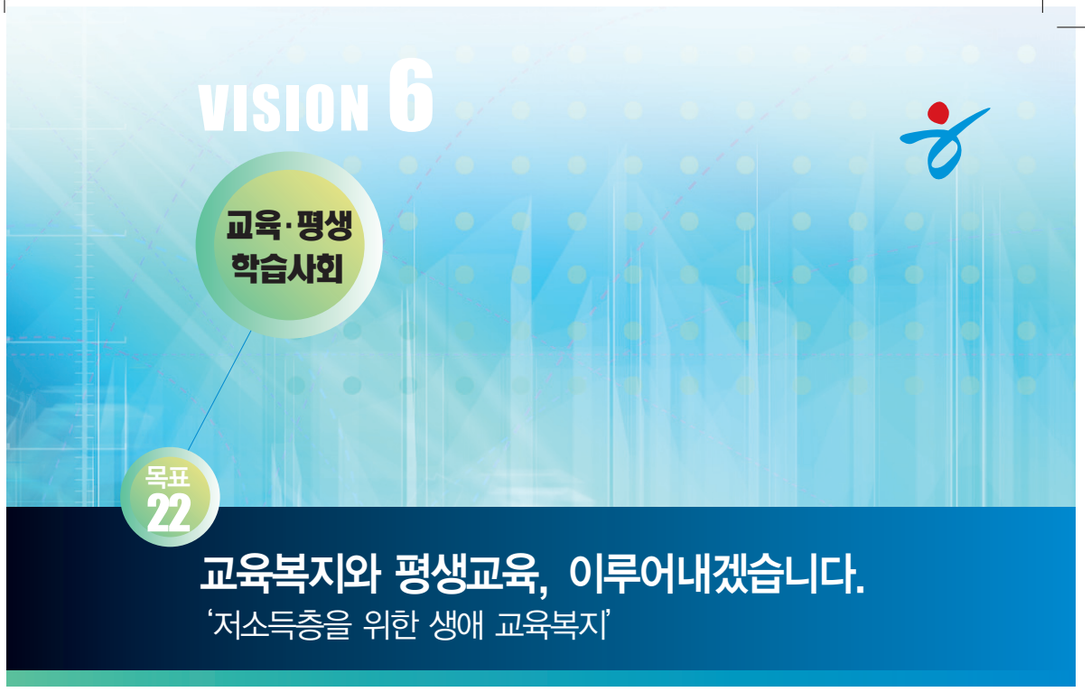
■ **현재 평균 7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학생 수준별로 차등화하여 적성과 대학이 요구하는 분야의 과목 위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자율화 2단계로는 수능과목을 축소, 2012학년도 최대 5과목(언어·수리·외국어를 기본으로 하고, 탐구 및 제2외국어 중 최대 2과목 응시)에서 2013학년도 수능(현 중2 적용)부터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선진 교육시스템으로 완전한 교육자율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학자율화 1·2단계를 통해 기본원칙이 정립되면 이를 법제화하고, 3단계에서는 대학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면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개발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의 정보공개로 책임성 부여 / 교육기관의 책무성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을 전면적으로 자율화하고 대학의 연구와 행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부노력에 부응하여 대학도 자체 개혁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이 학생선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원생들이 동일한 정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신입생 중 소외계층 비율, 출신고교의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결과 등 대학의 신입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학생선발 방식은 대학의 완전 자율에 맡기면서도 선발방식에 대한 기준과 선정방법 등은 공개적으로 공표하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노력이 전개되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경쟁이 생기고, 정부의 지원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도입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장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빈곤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에 영유아 통합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드림스타트(꿈의 실현을 위한 첫발 : dream start)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취학전아동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대해 보육 · 교육 · 보건 · 여가 · 문화 등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겠

(FQ)06한 나라 본 책(206~227) 2008.3.29 4:28 AM 페이지222 western

습니다. 빈곤층 미취학아동(0~5세)에 대한 조기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지원기관이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시·군·구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 인프라와 연계하여 전달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32개 지역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별 드림스타트 모형을 개발하고 수행체계를 확립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드림스타트 수행기관(국공립보육시설 등)의 우수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전국 100개 지역에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010년에서 2012년에 232개 지역(시·군·구당 1개소씩)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보화의 발전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지리적, 공간적 장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현실은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영어의 공용화 정책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촌과 낙후지역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영어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모든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현재의 1,300개소의 학교에서 2012년까지 3천 개소까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농어촌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어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사교육비 부담부터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FQ)06한 나라 본 책(206~227) 2008.3.29 4:28 AM 페이지224 western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경제력 부재, 취업상황 악화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기금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상 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생제 등을 총괄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맞춤형 장학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립대학 융자, 대학재정 관리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장학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장학 지원 근로장학생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재정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권자는 무상장학금, 차상위와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및 저금리 금리보전 시행으로 소득계층별 맞춤형 장학재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근로장학생제는 4년제 대학까지 시행하고,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현행 200만 원)하며, 전체 대학생의 0.5%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소득 연계형 융자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 후 향후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전면 도입 /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직장인의 자기계발과 은퇴한 분의 자기계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성인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직장인의 재교육 수요와 은퇴자를 위한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는 조치들도 마련해야 합니다.

■ 직장인 대입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직장인이나 일시 직장을 떠난 성인이 경력 개발을 위해 대학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직장인은 수능성적이 없는 경우라도 면접과 포트폴리오 등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시간제 등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수강시간을 유연하게 하며 대학이 보다 다양한 배움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도서관, 강의실, 강당, 컴퓨터실, 어학실 및 실험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대학의 주요 시설을 지역의 초·중·고등 학생들이 견학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의 센터'로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시설도 활용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를 수용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거리를 좁혀 나가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과 같은 미래교육공학을 활용하여 새로운 직업사회에 사회성원이 적응하는 제도들을 만들겠습니다, 회사나 기관의 사내대학도 육성하여 직업훈련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겠습니다.

(FQ)06한 나라 본 책(206~227) 2008.3.29 4:29 AM 페이지226 western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기숙형 공립고교 우선 배정(최대 교육기회 보장)

노무현 정부 하에서 추진된 교육제도의 틀 속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각종 장학금 혜택 등을 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은 저소득층 자녀들은 물론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육에 있어서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가중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회진출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최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가난의 대물림이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끊어질 수 있도록 기숙형 공립고교에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의 전유물로 간주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교에 저소득층 자녀를 할당하고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